



한솔제지, 국내 첫 글라신지 출시 100% 국내기술로 천안공장서 생산 성공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글라신지의 국내 생산이 이뤄졌다. 한솔제지는 천안공장 PM52호기에서 신제품 글라신지를 시험 생산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쳐 연말에는 시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솔제지는 지난 11월 9일 천안공장에서 글라신지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고객과 제조시간 윈윈 효과 기대

한솔제지는 단일 지종으로는 최대 규모인 글라신지가 전량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 국산화를 통해 고객과 제조사 간의 윈윈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수입지 대체, 납기 단축, 재고부담 경감, 고객 대응력 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라신지는 전세계 100만톤, 국내 2만톤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통되는 글라신지는 전량 Ahlstrom, UPM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라신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초지기 및 표면처리 설비(슈퍼캘린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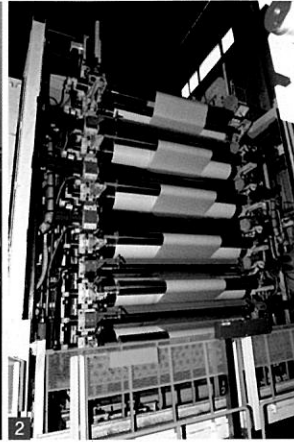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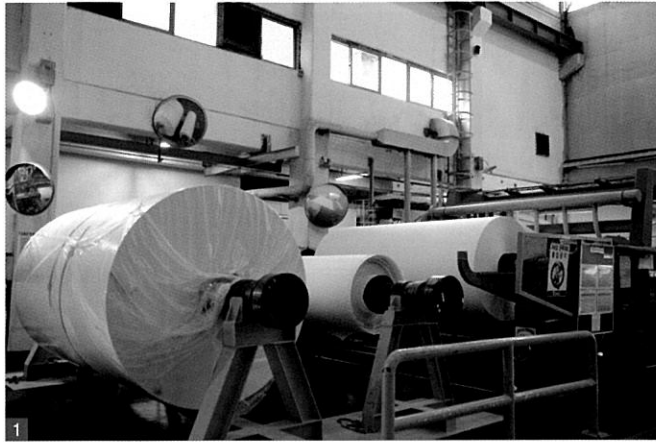
가습·슈퍼 캘린더 공정서 품질 결정

글라신지는 연간 전 세계 100만톤, 국내 2만톤의 규모로서 특수지 중에서는 단일 품목 최대로 손꼽힌다. 전 세계에서 연간

3.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간 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글라신지 생산 공정은 기초품질을 부여하는 조성공정에서부터 초지 공정을 거쳐 최종 품질을 결정하는 가습과 슈퍼 캘린더 공정으로 구분된다.

조성공정은 원료를 투입해 잘 배합하고 장단성 섬유를 알맞게 자르는 고해공정과 탈기 및 정선 과정으로 구분된다. 초지공정은 천안공장의 PM52호기에서 이뤄지며, 리필러와 로테이터를 통해 습도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가습공정을 거친다. 이 공정이 일반 용지와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다. 이후 글라신지의 품질이 결정되는 슈퍼캘린더에서의 고온·고압 슈퍼공정을 통해 글라신지가 완성된다. 한솔제지는 13단의 슈퍼캘린더를 활용했다. 완성된 용지는 재단공정을 통해 롤이나 낱장 형태로 창고에 보관된다.



1. 리롤러와 로테이터 통한 기습공정
2. 13단의 슈퍼캘린더 공정

Hi-Q 라벨 글라신지 특성

Hi-Q 라벨 글라신지는 고밀도·고평활도에 의해 PE 라미네이팅을 하지 않고, 종이 표면에 직접 실리콘을 처리해 우수한 이형력을 갖는다. 양호한 치수안정성, 켈 특성으로 인쇄, 재단, 라벨링 시 작업성이 우수하다.
실리콘 상용성 : 모든 실리콘(용제형, 무용제형)에 적합하다.
고밀도·고평활도, 두께 균일성 : 적은 실리콘으로 이형력이 우수하고, 다이커팅 작업성도 좋다.

고투명도 : 자동 라벨 적합, 고속 디스펜싱 특성이 있다.
치수안정성, 켈 : 인쇄, 재단, 라벨링 시 작업성이 우수하다.

연말 출시...수입지 뛰어넘을 강점 모색

글라신지 신제품 개발에 대해 신현두 한솔제지 천안공장장은 “수입지에 익숙한 고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종이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만들까를 가장 고민하면서 개발했다. 후발주자로 시작한 만

큼 수입지를 뛰어넘을 강점을 가진 종이를 만들고자 했고, 유통되는 선진 제품 분석과 벤치 마킹, 기술 연구를 통해 글라신지를 개발했다. 국내 개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공정과 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개발해야 했던 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공장전체의 협력을 통해 글라신지 개발을 이뤄냈고, 연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개발 포인트와 향후 출시 계획에 대해 밝혔다. ☞



〈미니인터뷰〉 신현두 한솔제지 천안공장장

“만족도 90%, 국내시장 50% 점유 목표”



Q 글라신지에 차한 만족도와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은?

이번에 개발한 글라신지에 대한 만족도는 90%다. 글라신지에 요구되는 핵심 품질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확보했으나 안

정된 공급을 위한 생산공정 정착이 아직은 남아 있어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수한 표면 특성으로 고객사에 원가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축성이 좋아 작업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고객사 대응과 납기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Q 2013년에 기대하는 시장점유율과 후발주자로서 고려해야 할 점은?

2013년은 글라신지의 생산공정 안정화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 약 5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로서 국내 글라신지 사용자들의 공정을 파악해 최적의 품질을 가진 종이를 공급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빠르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Q 향후 계획 및 천안공장의 미래비전은?

현재 생산 중인 글라신지의 안정적 공급에 충력을 기울이고, 이후 글라신지와 연계된 라벨 관련 신규 지종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라벨 관련 지종을 확대하고 일괄 공급 체계를 구축해 한솔제지 천안공장을 특수지 종합 메이커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